

KOREA GREEN FOUNDATION

환경재단



나무가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더불어 숲이 되어 지키자

04513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06 동화빌딩 3층 환경재단
대표전화 02-2011-4300 홈페이지 www.greenfund.org

희망이 있는 환경운동의 중심 **글로벌 에코캠퍼스** 함께해 주세요
설립

환경운동가 최열이 에코캠퍼스 위원님께 드리는 약속

안녕하세요, 환경운동가 최열입니다. 작년에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에 이어 폭염, 그리고 줄지 않는 미세먼지로 국민의 불안이 심해지고 있는데 어찌 지내시는지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38년 동안 한길로 환경운동만 했습니다. 공해라도 배불리 먹고 싶다는 빈정거림도,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오해도, 권력자의 앞길을 막아서 받은 탄압도 다 견뎌왔는데...소득 3만불 시대에 이렇게 나쁜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현대를 위험사회라고 정의했습니다. 과거에는 방재기술이 부족해서 홍수, 가뭄을 다루기 어려웠고 보건위생 시설이 부족해서 전염병이 돌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에 비해 현대의 위험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후재난, 플라스틱 오염, 미세먼지 등은 석유석탄에 의존한 탄소사회가 초래한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없어서, 몰라서 생긴 위험이 아니라 지구자원을 남용한 문명병입니다.

지난 4월 초 네팔에서는 폭풍우로 28명이 죽고 600여명이 다쳤습니다. 불과 한달 사이에 미국 남동부에 토네이도로 최소 23명이 죽었습니다. 충남 당진에서도 용오름 현상이 있었고 중국 허난성에선 회오리바람으로 2명이 사망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기후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WHO에 따르면 매년 미세먼지로 700만명이 사망합니다. 플라스틱으로 위장이 가득찬 고래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바야흐로 죽고 사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재난들이 불과 200년 남짓한 산업발전의 후유증이라면 이제 100년 앞을 내다보고 해결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검은 탄소문명에서 희망이 샘솟는 생명의 문명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어느 한 나라도, 정부도, 기업도, 개인도 각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함께해야 하고, 함께할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올해 71세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꿈을 꾸어봅니다. 지구자원의 문제를 정확히 알리고, 문제해결에 책임감을 갖는 인재들을 길러내고, 그들이 모이고, 연대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곳, 희망이 있는 환경운동의 중심, 에코캠퍼스를 여러분과 함께 세우고 싶습니다. 에코캠퍼스 추진위원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운동가 최열의 삶은
하나의 거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명사로 살지 않고 동사로 살 것'이란
약속을 지켜온 것입니다
이제 _____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33인 준비위원과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1919년 3·1운동 때 독립선언서에 민족대표 33인이 서명하였습니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던 민족독립운동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각계에서 33인이 뭉치면서 민족이 하나되어 전국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2019년은 3·1운동이 일어난지 100년 되는 해입니다. 4월22일 지구의 날에 33인이 다시 모였습니다. 선조들이 물려준 독립된 나라에서 우리는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까요. 불안한 미세먼지, 폭염과 홍수, 산불로 번지는 기후재난, 강산과 바다로 넘치는 플라스틱 쓰레기들...이제 멈춰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는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33인이 뭉쳤습니다. 새로운 100년, 희망이 있는 환경운동을 위해 신발끈을 동여맸습니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협력과 교육을 통한 인재육성과 전문기관의 필요성, 문제인식을 같이하는 각계 인사 33인이 글로벌 에코캠퍼스 부지에서 뜻과 힘을 모은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에코캠퍼스가 추구하는 통합의 힘,
환경과 인간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세계와 미래를 잇는 힘이 됩니다



우리 시대 33분의 리더들이 함께 시작합니다

글로벌 에코캠퍼스 준비위원회 (가나다순)

- | | | | | | |
|-----|----------------|-----|-------------------|-----|-----------------|
| 강미선 |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김형진 | 세종텔레콤 회장 | 이상봉 | 홍익대 패션대학원장 |
| 강신장 | 모네상스 대표 | 김홍신 | 소설가 | 임옥상 | 임옥상미술연구소 소장, 화가 |
| 강태선 | 블랙야크 회장 | 노동영 | 서울대학교 부총장 | 장미희 | 명지전문대 교수, 배우 |
| 고경민 | 아메바컬처 대표 | 문국현 | 뉴패러다임인스티튜트 회장 | 장사익 | 음악인 |
| 고춘홍 | 이브자리 회장 | 서명숙 | 제주올레 이사장 | 정재승 | 카이스트 교수 |
| 고현숙 | 국민대학교 교수 | 승효상 | 이로재 대표 | 조동성 | 인천대학교 총장 |
| 김문수 | aSSIST경영대학원 교수 | 안 강 | 안강병원 원장 | 조유미 | 퍼블리시스 원 코리아 대표 |
| 김상헌 | 네이버 고문 | 안병덕 | 코오롱그룹 부회장 | 최병오 | 패션그룹 형지 회장 |
| 김용택 | 시인 | 안성기 | 신영균예술문화재단 이사장, 배우 | 최재천 |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 |
| 김종량 | 한양대학교 이사장 | 유홍준 |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 최혁용 |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
| 김준묵 | (사)혁신경제 이사장 | 윤순진 | 서울대학교 교수 | 한비아 |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교장 |

준비위원회 33인의 메시지 응원



최재천 이화여대 생명과학대학 석좌교수
환경재단이 에코캠퍼스를 통해 환경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환경과학자로서 꼭 필요한 일기에 함께 하겠다. 축하드린다.



승호상 履露齋 대표
에코캠퍼스 설계중이다.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정말 좋은 환경이 되고, 우리 자손들에게 지속되는 바탕이 되도록 그런 건물을 설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한비아 세계시민학교 교장
에코캠퍼스 부지의 라일락이 활짝 피서 우리를 반겨준다. 이렇게 작은 곳에서 얼굴을 맞대고 회의를 하다보니, 굉장히 큰일을 도모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 초록세상을 꿈꾸면서 '큰나무' '작은나무'로 만난 우리들한테 아주 큰 불이 났으면 좋겠다.



장사익 음악인
지구의 날인데 오늘 날씨가 이렇다. 내 노래처럼 항상 높고 파란 하늘을 늘 꿈꾸고 있다. 그런 날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 같다. 에코캠퍼스 파이팅.



조동성 인천대학교 총장
에코캠퍼스가 만들어지면 지구차원의 환경문제를 해결할 세계적인 환경단체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고현숙 국민대 경영학과 교수
에코캠퍼스가 구축되면 많은 환경운동가들에게 지속가능한 쉼터, 교육과 재충전과 개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운동 자체가 지속가능한 것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에코 캠퍼스의 큰 역할일 것이다.



임옥상 화가
만들어지고 나면 앞으로 어떻게 끌고나갈지에 대해 준비 단단히 해야 한다. 에코캠퍼스가 이제 땅을 돋우는 수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대가 크다. 우리가 미처 정규교육에서 배우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우리 스스로 만들고 평생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될 것으로 기대해 마지않는다.



강태선 블랙야크 회장
산악인이라 본디 네팔 히말라야를 많이 올랐다. 기후변화 때문에 눈이 녹아서 정말 많은 쓰레기들이 나온다. 히말라야처럼 산을 오르느라 버린 쓰레기는 산악인들이 치워야 한다. 환경운동도 그런 마음으로 하면 잘될 것이다. 에코캠퍼스가 환경 운동의 모태가 될 수 있는 확실한 자리라고 생각이 든다.



문국현 뉴패러다임 인스티튜트 회장
정책, 기업, 교육, 시민운동이 이렇게 따로 가면 얼마나 나라가 부패할 수 있는가 볼 수 있었다. 에코캠퍼스가 우리 정책의 변화, 기업 기술의 변화, 정부와 정책과 시민사회가 젊은이와 함께 사람을 위해 파트너십을 만드는 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유홍준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이 터는 백사 이항복이 살았던 필운대와 인왕산 부채바위가 내려다보는 아름다운 풍광으로 봄이면 진달래 화전놀이 장안의 문장가들이 시를 짓고 자연을 읊미하던 곳이다. 환경운동의 중심으로 뿌리 내리기에 맞춤형 터, 잘 잡았다.



이상봉 디자이너/홍대패션대학원 원장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로서 환경을 파괴하는 직업을 갖고 있다. 특히 의상은 대량생산으로 전환되는 시점이라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이 환경에 대해 배운 것을 다른 직업보다 내가 하는 직업에 어떻게 적용해서 많은 디자이너들, 패션하는 관계자들에게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 에코캠퍼스가 환경공부를 더 잘하게 해줄 것 같아 기대가 크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환경재단은 다른 환경단체들이 하지 못하던 분야를 환경 운동 영역에 잘 접목시켰다. 특히 문화 예술을 통해 환경 감수성을 높인 게 가장 잘 와 닿는다. 에코캠퍼스가 쉽고 편안하게 환경문제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국내외 환경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장을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해외에는 장기적이고 깊이있는 논의의 장이 있는데 에코캠퍼스가 국내에서 그걸 해주면 좋겠다.



안병덕 코오롱그룹 부회장
환경재단의 감사로서 몇 년째 같이하고 있는데, 환경재단 직원들 보면서 많이 느끼는 바가 있어서 지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채 참여하고 있다. 참 열심히들 노력해주어 감사하다. 주위의 기업인들에게 널리 알려겠다.



김형진 세종텔레콤 회장
서촌 제일 높은 언덕인 에코캠퍼스 부지는 북악산과 인왕산의 정기가 고이는 곳이다. 바로 열 경북궁은 임금이 누린 자리고 북촌은 양반이 누린 자리다. 이에 비해 서촌은 중인계급 등 전문가들이 살던 곳이기도 시민 환경단체의 활동공간은 우연이라고 할 수 없다. 좋은 에너지가 넘치는 이 공간에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활동이 왕성하게 펼쳐질 것이다.



강신장 모네상스 대표
환경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자기가 선 자리를 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부디 에코캠퍼스와 동행하며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고 작은 경험을 나누고 싶다.



김문수 aSIST 경영대학원 교수
300억 예산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제일 빠른 방법은 10명의 자산가가 30억씩 내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다. 하지만 만약 100만 원 내는 시민들이 만 명 참여할 수 있다면 훨씬 감동적일 것이다. 에코캠퍼스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



김준목 (사)혁신경제 이사장
경복궁이나 청와대도 아래로 내려보게 된다. 환경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게 하는데 맞춤형 장소라는 생각이 든다.



신용준 이브자리 부회장
좋은 자리에서 희망적인 꿈을 꾸고 지구 차원에서 미래를 바꾸고 싶다는 에코캠퍼스의 정신을 지지한다. 오늘 저 마당 앞에서 함께한 라일락 결의가 성공하도록 함께하겠다.

글로벌
에코캠퍼스
추진 경과

■ 부동산 매입 2018년 10월 31일 1,160m² · 약 350평 ■



총 6,140,352,475 원



우리가 만드는 미래,
에코캠퍼스는 희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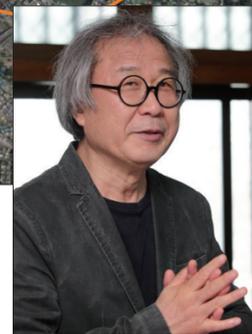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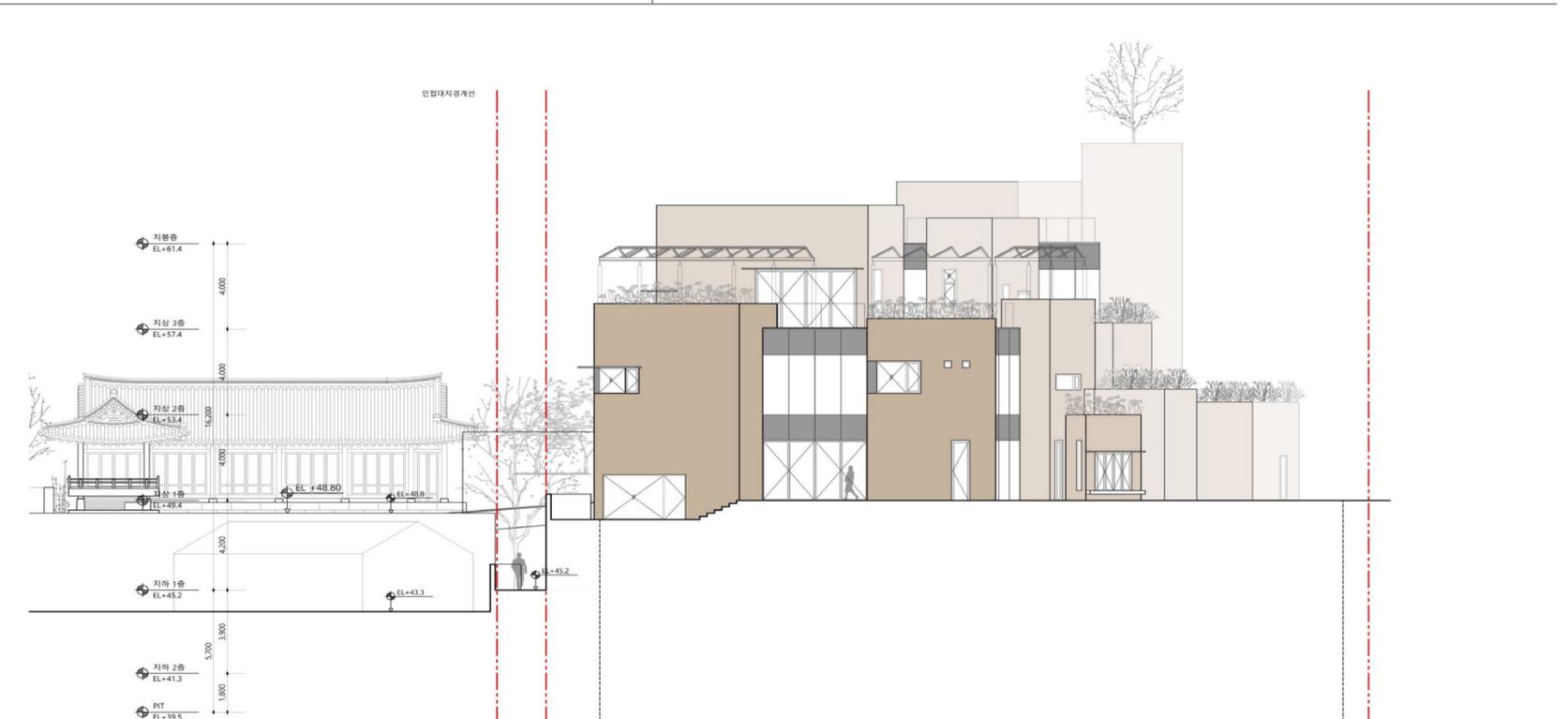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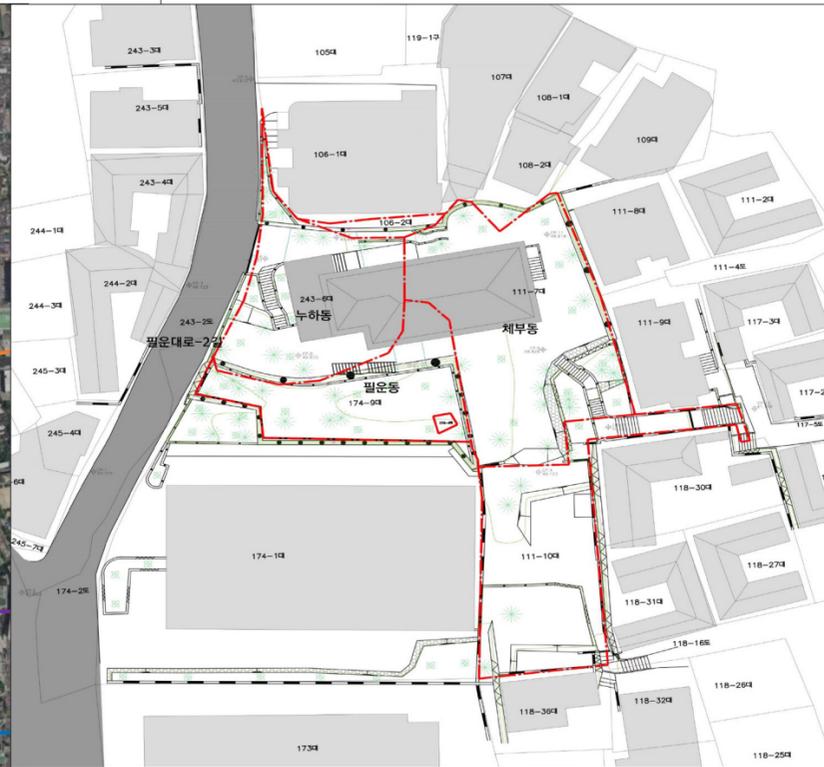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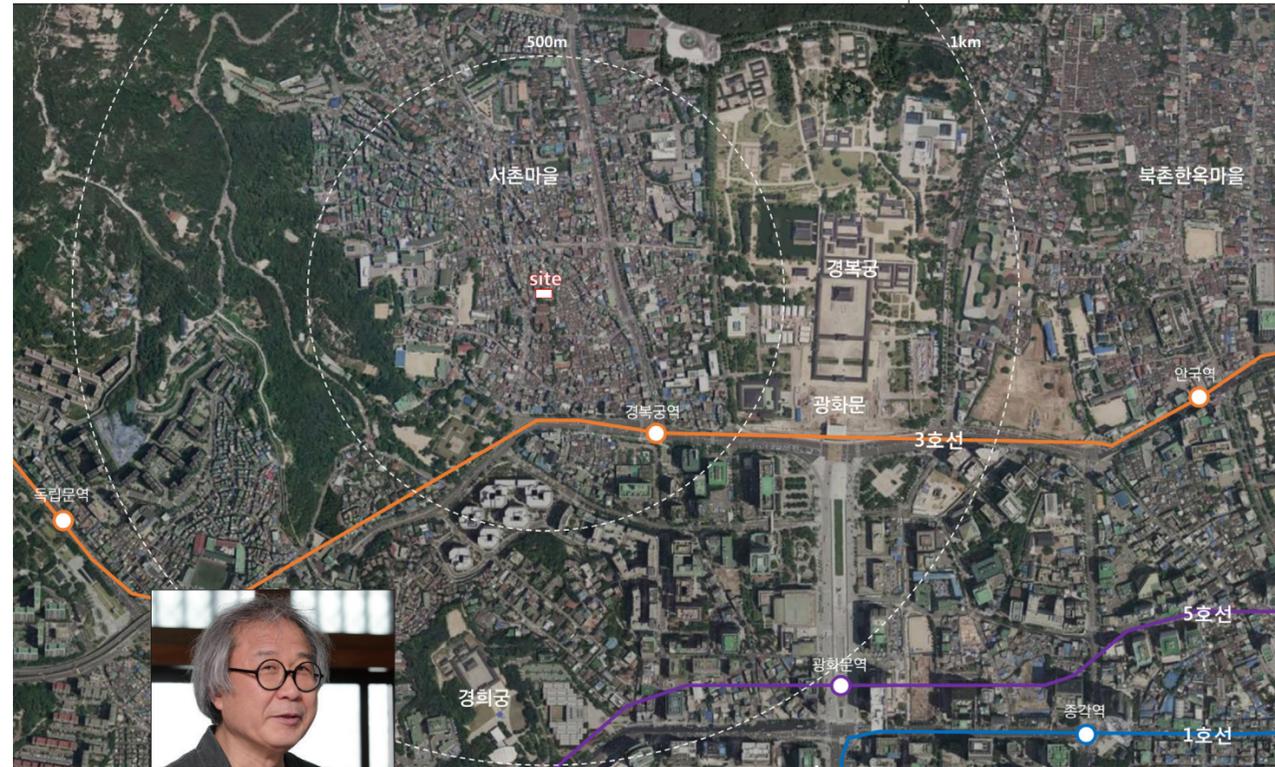
[에코캠퍼스 조감도, 세부사항]

글로벌 에코캠퍼스 위치, 대지현황

위치 서울시 종로구 누하동
243-6외 5필지
경복궁역 (3호선) 500m

대지면적 총 1,164m² (352평)
- 872.2m² (누하동 243-6외 4필지),
291.7m² (체부동 111-10)
- 건폐율 60%, 용적률 200%

건물 연면적 총 2,223.9m²(675평)
- 빌딩 2,000m² (608평) 지상3층, 지하2층
- 한옥 223.9m² (67평) 지상1층, 지하1층
한옥멸실 필지이므로 반드시 한옥을 지어야 함



건축설계
승효상 履露齋 대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글로벌 에코캠퍼스 미션 & 비전



미션

글로벌 에코 캠퍼스의 미션은 현존하는 기후환경재난이 탄소과잉 문명의 결과라는 것을 인식하고 국내외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손잡고 에코 리더를 육성하여 탄소사회가 지구용량의 한계안에서 함께 번영하는 순환사회로 도약하는 희망의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비전

2030년까지

지구차원의 기후환경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알릴 수 있는 환경전문 민간 싱크탱크를 구축하여 아시아환경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아시아환경포럼과 가장 신뢰받는 기후환경 미디어로 발전하겠습니다.

탄소문명의 대전환을 위해 4차산업 기술과 현장체험 등 차별적인 방법으로 글로벌 에코리더 육성기관이 되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공식 교육 기관으로 키우겠습니다.

기후환경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단체를 돕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기후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도록 청년 스타트업을 육성하여 솔루션메이커 액셀러레이터가 되겠습니다.

장기적인 문제해결 과정을 질서있게 실행하기 위해 국내외 정부, 기업, 시민사회, 전문가,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조율합니다.

거버넌스
Governance

**핵심
가치**

임파워먼트
Empowerment

교육/문화
Education
Culture

모든 변화의 기초는 교육입니다. 공교육이 할 수 없는 미래지향적인 교육과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와 융합하여 에코리더를 육성합니다.

탄소문명 대전환을 위해 활동하는 국내외 환경단체와 활동가, 전문가, 스타트업 등을 지원하고 연대합니다.



글로벌 에코캠퍼스의 6개 프로그램

1 교육

환경문제에 대한 리더십과정, 체험학습, 온오프라인 강의 등 교육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분야의 에코-솔루션메이커를 육성합니다.

ex 에코비즈니스스쿨(CEO, 임원), 공직자 대상 프로그램, NGO 프로그램, 미래세대를 위한 체험 교육 프로그램, 캠프 등



2 문화

영화, 책, 공연, 페스티벌 등 문화 예술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자연스럽게 환경 인지도수성을 높입니다.

ex 환경영화제, 콘서트, 전시, 에코북카페, 에코리더스 클럽 운영, 여행, 요리 등 환경 관련 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3 연구

환경문제의 원인, 예측, 대안을 생산, 축적하기 위해서는 기초 및 응용과학은 물론 다양한 인문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위기 앞에서 가장 믿음만한 대안을 제시하고 혼란 앞에서 안도할 수 있도록 가장 믿음만한 정보전달자가 되겠습니다.

ex 기후변화 국내외 저널 리포트, 정책보고서 출간, 해외연구소 콘텐츠 제휴 등 기후환경 전문 미디어 & 씽크탱크



4 캠페인

환경문제 개선에 모든 사람이 각자의 생활에서 자신의 창의적인 방법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와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에코 라이프가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액셀러레이팅

NGO는 물론 과학, 산업, 기술 분야의 청년들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창업하고 상품과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도록 돕겠습니다.



6 포럼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문제는 특정 국가나 기업이 해결할 수 없는 매우 복잡하고 연결되어 있는 지구적인 이슈입니다. 특히 기후재난의 70%가 발생하고 대응이 미흡한 국가가 많습니다. 아시아 환경포럼을 구성하여 아시아의 환경문제에 관심있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연대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환경재단 소개

함께 지키는 아시아,
아시아의 그린허브,
그린리더가 세상을 바꿉니다.

환경재단은 2002년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된 공익재단으로써
문화적 접근방식과 전문성을 통해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와 아시아의 환경운동가와
시민·환경단체들을 만나고 도왔으며,
환경 전문성을 바탕으로 누구나
일상 속에서 환경문제를 가까이
생각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습니다.

운영철학

MISSION

환경재단은
아시아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시민사회/정부/기업과 손잡고
기후·환경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아시아의
그린허브입니다.

VISION

2020년까지
100만 그린리더를 키우고,
1만의 그린리더(후원회원)를
모으고, 환경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기업·기관과 함께
하겠습니다.

VALUES

01. 공부합니다
02. 현장을 찾아갑니다
03. 행동합니다
04. 연대합니다
05. 함께 이룹니다

환경재단이 걸어온 17년

